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3-14호 / 03월 07일

중국 全人大 개최: 朱鎔基총리 정부사업보고 내용 및 평가

1. 개요

- 주룽지 총리는 3월 5일 제10기 全國人民代表大會(의회: 이하 全人大) 제1차 회의(3.5~18)에 제출한 <정부공작보고>에서 지난 5년(1998~2002)간의 성과를 평가하고, 금년의 정부 중점사업 내용과 정책방향을 상세하게 밝힘.
 - 주요내용은 ▲내수확대와 확대재정정책을 통한 7% 성장 유지, ▲농민수입 증대와 실업대책 등 저소득층 보호, ▲부동산투자 과열 방지, ▲비공유제경제 지원과 대기업집단의 육성, ▲정부기구 개편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부패 척결 ▲대만 평화통일을 향한 3통(통상, 통항, 통신) 실현 추진 등임.
- 중국정부의 금년도 사업내용과 정책은 기본적으로 작년의 연속선상에 있으나, 몇가지 측면에서 세부적인 조정이 눈에 띈.
 - 작년에 이어 확대재정정책을 지속하되 내수확대 수단으로 재정투자보다는 민간소비의 역할을 더욱 강조함.
 - 농민소득 제고를 위해 종래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조세부담 경감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, 도시이주 농민의 권익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함.
 - 중국경제의 국제화, 시장화 추세에 걸맞는 정부기능의 전환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개혁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함.

2. 정부사업보고의 주요 내용

□ 주룽지 총리는 아시아금융위기, 전세계적인 성장 둔화, 국유기업의 대규모 정리해고, 1998~99년의 대홍수 등 대내외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음.

<표-1> 지난 5년(1998~2002)간 중국의 경제적 성과

주요 내용	1997		2002	비고
GDP 규모	7조 4,000억 원	→	10조 2,000억 원	▪ 연평균 성장률: 7.7%
국가 재정수입	8,651억 원	→	1조 8,914억 원	▪ 연평균 증가액: 2,053억 원
무역 규모	3,252억 달러	→	6,208억 달러	▪ 세계 10위 → 5위로 성장
수출	1,828억 달러	→	3,256억 달러	
FDI 규모	2,261억 달러 (누계 기준)			
외환보유액	1,399억 달러	→	2,864억 달러	▪ 증가액: 1,465억 달러 증가
R&D 투자 규모	509억 원	→	1,161억 원	
GDP대비 비중	0.64%	→	1.13%	
전사회고정자산투자	총 17조 2,000억 원 (누계 기준) ▪ 장기건설국채 발행 규모: 총 6,600억 원 (※ 서부대개발 투자규모(2000~2002): 6,000억 원)			
수리시설 건설	총 3,562억 원 (※1950~97년까지 중국 누계투자와 동일한 규모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)			
하천제방공사	총 35,000 km (착공 기준) ▪ 장강 간선제방 공사: 3,500여km (완성) ▪ 황하 제방 보완공사: 1,000km 정도(완성)			
수송인프라 건설				
도로건설	총 1조 2,343억 원 (※ 1950~97년까지 중국 전체 도로건설 비용의 1.7 배 규모)			
전체도로	123만 km	→	176만 km	▪ 증가 규모: 53만 km
고속도로	4,771km	→	25,200km	▪ 증가 규모: 20,429km ▪ 세계 39위 → 2위로 급성장
철도운행 규모	65,969km	→	71,500km	▪ 증가 규모: 5,531km
공항 건설	총 50개 (신설·개선·확충 포함)			
항만 건설	총 화물취급량: 1억 4,400만톤 (신설항만 기준)			
정보통신인프라 건설				
장거리광케이블	15만 km	→	47만 km	
일반이동전화사용자수	8,354만호	→	4억 2,100만호	▪ 세계 1위로 급성장
에너지 설비 건설				
발전기설비용량	2억 5,400만kW	→	3억 5,300만kW	
환경보호 및 생태계건설	총 5,800억 원 (※ 1950~97년까지 투입총액의 1.7배 규모)			
조림조성	▪ 사업 면적: 4억 1,800만 무			
임야조성	▪ 사업 면적: 4억 7,300만 무			
環境林 조성	▪ 사업 면적: 5,737만 무			
사막화정비사업	▪ 사업 면적: 8,550만 무			

주: 주룽지 총리의 정부사업보고(2003.3.5) 내용을 발췌·요약정리

- 반면, 국내 유효수요 부족, 농촌경제 낙후, 높은 실업률, 국유기업 개혁 부진, 시장경제질서 미정착, 일부지방의 사회불안 및 환경악화, 관료들의 형식주의와 무사안일주의, 부정부패 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함.

□ 주룽지 총리는 중국의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①내수확대 및 안정적인 고도성장, ② 농업·농촌경제 발전, ③산업구조조정과 서부대개발, ④경제체제개혁 심화 및 대외 개방 확대, ⑤취업난 해소와 사회보장제도 확립, ⑥과학 및 교육발전, ⑦사회주의 민주법제와 정신문명건설 강화, ⑧정부개혁 및 부정부패 척결 등을 제시함.

<표-2> 제10기 전인대 제1차회의 정부사업보고 주요내용

주요 목표	주요 내용 및 정책방향
내수확대, 안정적 고도성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확대재정, 통화안정, 민간소비 및 투자수요 증대를 통해 7% 경제성장 실현 ▪ 1,400억 元의 장기건설국채 발행: 서부대개발, 농촌환경 개선 등
농업·농촌경제 발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농민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 구조조정 가속화 ▪ 도·농간의 조화로운 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 ▪ 농촌세계개혁의 전국적 확대 추진
산업구조조정과 서부대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첨단기술산업 및 정보화 사업 집중 육성 ▪ 서비스 및 관광산업 발전에 주력 ▪ 동·중·서부지역간 공동 발전 촉진
경제체제개혁 및 대외개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유제와 自營·私營 등 비공유제경제 공동 발전 ▪ 국제경쟁력을 지닌 대기업집단 집중 육성 ▪ 대외무역체제개혁 심화
취업난 해소 및 사회보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노동집약 및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유희·실업인구 흡수, ▪ 연금·보험제도 강화
과학기술 및 교육	핵심기술 투자·교육 강화, 대외경쟁력 강화
정부기구 개편	정부기구 간소화로 행정효율제고, 전자정부 시스템 건설

가. 내수확대정책의 지속과 안정 속의 고도성장 추구

□ 지속적인 내수확대정책,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, 소비 및 투자수요 증대 등을 통해 7% 내외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함.

- 특히 민간소비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, 이를 위해 공무원 급여 및 퇴직금 인상, 도시 저소득층 및 농민의 소득증대 등을 추진

- 서부대개발, 농촌환경 개선 등을 위해 1,400억 원 규모의 장기건설국채 발행
- 부동산 투자 과열에 따른 투기억제 대책 강구
- 금융안정, 금융서비스 개선 및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
- 중서부지역과 빈곤지역에 대한 이전지불 확대

나. 농업 및 농촌경제의 구조조정 및 발전 가속화

□ 농업 및 농촌경제의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가 경제사업의 최대 중점사업임을 강조

- 도·농간의 조화로운 경제사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경제의 구조조정을 가속화
o 이를 위해 농산물가공업 발전, 농산물품질 안전체계 강화, 유통체계 개혁 등을 추진하는 한편, 시범 시행중인 농촌세계개혁을 향후 전국으로 확대
- 또한, 절수형관개시설, 도로, 에너지, 교육 등 농업기초시설건설과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도시근로 농민들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대책 마련

다. 적극적인 산업구조조정 및 서부대개발

□ 첨단기술산업 육성과 정보화 추진을 통해 경제성장 및 공업화 견인

- 동시에 전통산업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며 철강, 자동차, 건설장비 등의 분야에 대한 무질서한 경쟁을 금지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및 관광산업 발전에 주력

□ 서부대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동·중·서부 지역간의 상호 보완 및 공동 발전을 촉진

- 특히 서부지역에 대한 낙후된 공업설비와 오염기업의 이전을 금지하고 동 지

역의 특화·비교우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

라. 경제체제개혁의 심화 및 대외개방 확대

□ 공유제를 근간으로 하되 개체(자영)·사영 등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권장·지원·유도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소유제를 공동 발전시켜 나감.

- 국유기업의 주식회사 형태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명브랜드를 보유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집단을 집중 육성함.
- 국내 민간자본의 시장진입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및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안정적인 금융체제개혁을 추진함.

□ 모조품 제조·판매 등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산업안전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주의시장경제 질서를 구축함.

□ 외자 유치 뿐만 아니라 중국자본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여 대외개방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

- WTO 가입에 따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한편 다자·양자간 지역경제협력을 적극 추진
- 또한, 국내 유명브랜드를 집중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입구조를 최적화하며 자본재 수출을 장려·지원하는 등 대외무역체제개혁을 심화
- 외자의 효율적 활용, 선진기술 및 경영방식 도입, 합작기업에 대한 지원 등 투자환경을 개선

마. 취업난 해소 및 사회보장제도 확립

□ 취업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급 정부의 역할 강조

- 정리해고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반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국유기업의 인원감축-생산성제고-재취업 촉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대학 및 직업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

□ 도시주민의 최저생계보장, 도시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제도, 실업보험 등을 정비

바. 기타

□ 과학기술·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도시환경의 종합적 정비 등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수립

□ 국제적인 문화교류 확대 등을 통해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며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해세계무역박람회를 위한 준비작업을 철저히 추진

□ 정부기구 개혁의 심화, 형식주의·관료주의의 배격 및 부정부패 척결

- 소수민족 간부의 양성을 강화하고 경제와 국방간의 지속적인 균형발전을 견지
- ‘하나의 중국’ 원칙하에 홍콩·마카오 등에 대한 ‘一國兩制’ 원칙과 兩岸관계를 발전시켜 나감.

3. 평가 및 시사점

□ 금년도 정부사업보고는 지난 5년간의 발전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제16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‘전면적인 小康社會’ 건설이라는 중장기적인 국가발전 목표에 입각, 신정부의 사업내용과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.

- 특히 금년에는 이번 전인대를 마지막으로 공식 은퇴하는 주룽지 총리가 주도해 온 지난 5년간의 거시정책과 경제사회 발전성과를 평가하는 데 전체보고의 3분의 2 이상을 할애하고 있는 점이 주목됨.

- 주 총리의 평가대로 지난 5년간 중국은 불리한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일관성 있는 거시정책에 힘입어 견실한 고성장을 실현해 왔으나, 이러한 성장 추세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음.
 - 우선, 금융개혁의 부진으로 2001년말 현재 4대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2조 2,000억 원으로 GDP의 4분의 1에 달하고 신규 부실채권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바, 이는 금후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임.
 - 지금까지 중국의 수출과 성장은 과도하게 외자에 의존해 왔는바, 금후로는 산업구조조정 가속화 및 외자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창출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.
 - 정부사업보고에서도 농민소득을 제고시키는 문제는 ‘핵심중의 핵심’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, 공급과잉에 의한 농산물가격 저하 추세, 도농격차 확대, 농촌 잉여노동력 문제 등은 기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.

- 지난 5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시된 중국의 금년도 사업내용과 정책은 기본적으로 작년의 연속선상에 있으나, 몇가지 측면에서 세부적인 조정이 눈에 띈.
 - 우선, 내수확대를 위해 확대재정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동시에 재정투자보다는 민간소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함.
 - 최근 중국내에서는 지난 수년간의 연속적인 국채발행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국채투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, 금년의 국채발행 규모는 작년보다 100억 원 감소한 1,400억 원 수준임.
 - 이에 따라 금년에는 국채투자의 용도를 인프라시설과 농촌생활환경 개선, 산업구조 고도화, 취업확대 부문에 집중시킬 것이며, 특히 부동산투자의 과열을 경계하고 있는 점이 주목됨.
 - 중국정부는 작년부터 민간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, 특히 금년에는 공무원 급여 및 퇴직금의 대폭 인상을 단행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임.

- 둘째, 소위 '3농'(농업, 농촌, 농민) 문제 해결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농민소득 제고와 관련해서는 농촌지역 조세개혁, 농촌잉여노동력의 도시이전과 관련된 대책을 제시함.
- o 특히 작년까지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농민의 조세부담(준조세 포함) 경감조치를 금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임.
- o 이와 함께 농민 출신 도시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중시하여 이들의 도시빈민화 및 그로 인한 사회불안 소지를 제거하고자 한 점이 주목됨.
- 셋째, 제16차 당대회에서 사영기업가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 데 이어서 개체·사영기업 등 비공유제 경제에 대한 지원 방침을 더욱 강조하고, 국유기업 개혁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국유자산관리체제 개혁의 중요성을 부각시킴
- 넷째, 금년에는 정부개혁의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되었는데, 이는 중국경제의 국제화, 시장화 추세에 걸맞는 정부기능의 전환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의미함.
- o 이미 금년 전인대에 국가경제무역위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통폐합 및 상무부 신설,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신설을 포함하는 기구개편안이 상정되어 심의중임.(***)